



2대리구 성정하상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주일 2022. 01. 16. (다해) 제2304호

제1독서 이사 62,1-5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변화

교구 성직자국장 | 서보호 라이문도 신부



기적을 믿으시나요? 가끔 주변에서 들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도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그 일들이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대부분은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기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성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며 그분께 큰 신뢰를 둡니다. 성모님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모님의 믿음으로 시작된 표징이 제자들의 믿음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카나의 첫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적의 현상보다 성모님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믿음이 기적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기적(뮈나미스)’이라는 표현 대신 ‘표징(세메이온)’이라는 표현

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서가 기적의 현상보다 의미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성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현상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나의 첫 표징에는 믿음과 새 시대의 도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결례에 쓰인 독은 구약을 상징하는데, 그 독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현상보다 의미에 더 집중한다면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 삶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마음이 닫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어느 순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용서해버린 미움과 분노로 대했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이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 것 등 수도 없는 표징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이렇듯 믿음을 가진 내 삶 안에서 시작됩니다.

카나의 첫 표징은 나를 강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변화가 가족, 이웃, 교회,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 교회와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필문**

밋세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밋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밋세바의 관계는 주님의 눈에 거슬린 것이었고(2사무 11,27)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죽음으로 다스리는 범죄로 여겼다(레위 20,10; 신명 22,22).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였던 밋세바를 탐하고 범했던 다윗의 행동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치 않다. 더불어 밋세바가 다윗의 청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밋세바 역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식의 해석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윗은 임금이었고 다윗은 권력을 움켜쥔 사람이었다. 밋세바는 다윗의 욕정과 탐욕의 희생자였다. 다윗은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밋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지만, 주님은 그 아들을 치셨다(2사무 12,18). 죄의 참혹함은 희생에 또 다른 희생을 쟁여 놓아 삶의 일상을 슬픔과 아픔으로 휘저어 놓고야 만든다.

역사 속에서 메시아 가문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삶은 이렇게 어지럽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런 다윗

에게 예언자 나탄은 가난한 이를 약탈하는 부자의 횡포를 담대히 전한다. 가난한 이가 아끼던 양을 부자는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뺏아 온다. 부자는 많이 가졌지만 가난한 이에겐 그 양 하나만 있었다. 가난한 이는 그 양을 딸처럼 여겼고, 그의 품 안에서 양은 잠을 청했다. ‘딸’은 히브리어로 ‘밋 נַחֲמָה’이다. 가난한 이의 팔에 안겨 잠들던 그 ‘양’, 곧 ‘밋’은 다윗의 팔에 안겼던 ‘밋-세바’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가족처럼 아끼던 그 양이, 그 딸이 희생되고 죽어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2사무 12,5).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2사무 12,7). 나탄의 날카로운 직언이다.

희생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다. 다윗은 나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죽음은 하느님의 자비로 비켜갔지만, 다윗과 그 집안은 그 후로 줄곧 어지럽고 위태로웠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타마르를 범하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군대에 의해 죽어갔다. 메시아의 집안은 다윗의 약함과 악함 속에 지독히도 고단하고 힘겨운 역사를 써 내려 갔다.

누군가에게 유일하고 소중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범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세상 일인가 보다. 이런 삶에 대한 서로의 괴리가 죄를, 악을 잉태하는 건 아닐까. 타인의 삶을 싱겁게 여길 때면 다시 자세를 고쳐 밋세바를 떠올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려 노력한다. 제 품에 안겨 잠을 청하는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행여 대못을 박아놓은 게 아닐까,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참회한다. **필문**

말씀 따라 잡기

창세 1,1-2,4 첫 번째 창조 이야기

"혼돈에서 질서로"

투스평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 김유정 알마 수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조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에게 뿌리박힌 자신의 기원을 상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의미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계시 진리를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과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기록한 문학 작품입니다. 지구를 바다 위에 기둥으로 떠받쳐진 평평한 구조물로, 하늘을 비와 눈이 내리게 하는 창문이 달린 얇아져 있는 사발 모양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전제로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가의 형식으로 된 신앙 고백문으로서 성전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절대자이시며 전적인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과 계획에 따라 우주를 혼돈에서 질서로 변모시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모든 사건, 시간, 장소, 나의 삶이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전개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서 삶을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시어 '보시니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사건의 절정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단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위상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작은 신"과도 같은 존재이며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사람은 하느님께 속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하느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문**

말씀 맞히기 Q & A

1.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구절을 세 가지 이상 찾아서 적어보세요.
2. 하느님께서 넷째 날에 빛물체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큰 빛물체와 작은 빛물체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1,16 참조)
3.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28 참조)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1월 21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1월 23일 연중 제3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홍재영(洪梓榮) 프로타시오는 충청도 예산의 유명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충주에서 태어나 한양에서 성장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홍낙민 루카는 그의 부친이요, 1866년에 순교한 홍봉주 토마스는 그의 아들이다. 프로타시오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서 교리를 배웠다. 또 장성한 뒤에는 동료들과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1801년의 신유박해로 체포된 후에는 부친과 같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뒤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도 프로타시오는 한동안 냉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총의 힘으로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이전의 잘못을 보속하려는 생각에서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갔다.

1832년 조정에서 유배자들에게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자, 광주 관장은 프로타시오를 불러다 “이제 마음을 고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에도 그대로 광주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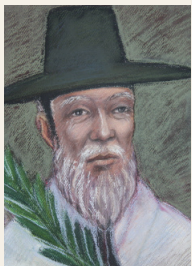
이로부터 7년 뒤인 1839년에 이르러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프로타시오의 마음에는 순교자들의 뒤를 따름으로써 이전에 잃은 기회를 다시 찾겠다는 욕망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는 피신해 다니는 여러 교우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함께 있던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광주의 관장은 프로타시오를 문초하고 나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전주로 이송시켰다. 그때 읍내의 주민들 3~4백 명이나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벌한단 말인가’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괴로움으로 울부짖기까지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날부터 프로타시오는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밀고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두 거부하였다.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형벌을 당하면서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조정으로부터 사형 판결이 내려왔는데 그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홍재영은 근본이 흉악한 종자로 대대로 천주교를 신봉해 왔으며, 선교사를 청해올 때 힘을 기울였고, 천주교 서적을 배긴 것이 110여 권에 이르며, 수십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으뜸이 되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타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0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홍재영 프로타시오
(1780 ~1840년)



42. 혼인의 사랑 ⑪

사랑으로 혼인하기 사랑은 단순한 외적인 합의나 일종의 혼인 계약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가시적 형식을 특정한 의무와 함께 그러한 결합에 부여하는 결정이 그 결합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인은 우리가 성장해 온 보금자리를 실제로 떠나 또 다른 강한 유대를 형성하여 다른 이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혼인에는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일련의 의무가 따릅니다. (거행되는 혼인에서) 이렇게 ‘네’라고 응답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언제나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매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쾌락이나 이기적인 이익의 기회가 새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결코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131~132항)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2년 1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3.2(수)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장 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만원) | 문 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종교철학 산책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	성경 첫걸음 그리스도인들의 삶
14:00 ~ 16:00	하느님에 대하여 성사론	초대교회 세상살이	예언자들이 전한 하느님의 편지 현대 영성과 토마스머튼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믿음과 사랑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과소비 지수 (월평균수입 - 월평균저축) **계산해서 실천해보기**
월평균수입

1 이상 : 심각한 과소비 / 0.7~0.9 : 과소비 / 0.6 : 적정 소비 / 0.5 : 알뜰소비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3호 정답

1.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2. ② 3. 61장 1-2절 4. 유다 임금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을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꿈수(?)는 안 통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2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8일(화) 11:00 계산성당	-	-

성소 | 피정

낙태 후 화해 피정

기간: 2.4(금)~6(일)

장소: 명상의 집

비용: 무료

문의: 착한목자수녀회, (010)4120-1796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기간: 3.6~8 / 3.17~19 / 3.26~28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구반장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교육 | 모집

2022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 10:00, (월) 20:00

신약반: (화) 10:00, (화) 20:00

심화반: (수)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혜택: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기간: 1.11(화)~2.9(수)

대상: 상호문화교육희망자, 이주배경

청소년 /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3월 개강)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 가톨릭 사회교
리, 구약성경 아카데미, 가톨릭 신앙과 영
성, 영신수련 정기강좌: 영신수련과 성서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http://center.jesuit.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 053-959-7175
010-9597-7175

곽재혁신경과
OF-KWARK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정신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전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분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lt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39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행사 | 모임

2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2.20(일) 9:30~13:30

장소: 추후 신청자 개별 연락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2.10(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일시: 3.2(수)~3(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2.17(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육 | 모집

청년청소년국 음악팀 '노엘' 단원 모집

함께 찬양할 열정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분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남성), 촬영 담당 등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010)9176-843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33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3.21(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제13기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 모집

일시: 2.21(월)~25(금) 9:30~17:00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미술심리상담사 2급·1급,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성물도예, 사군자문인화, 사범꽃꽂이, 칼럼바, 발성법, 장구,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가톨릭스카우트 신입대원 모집

대상: 현 초등 3~6학년

신청: 1.31(월)까지

다음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지구

문의: 사무국장, (010)2810-8661

성지안내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3.15~6.21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7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전례꽃꽂이연구회 1월 월례회

일시: 1.17(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바오로딸 청년 기도 모임

일시: 1.18(화) 19:00(매월 1회)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대상: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청년 누구나

문의: (010)2507-1610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19:30)

신약(수 10:00/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심화반: 시편(월 10:00/19:30)

문의: (010)8750-6573 / (010)3475-3431

채용 | 안내

복자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가능,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0(목)

문의: 745-3850 / (010)3828-6164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2022년 상반기(임시 영업 중단)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그루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심판
토지보상, 민원대행

010-3534-1371

대표 이 경 배 (요셉)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민간자격등록 제2020-002037호

하모 니카
모 집 강사반·초급반·중주단

010-2410-2688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일서구 외동로 142 (이마트 집앞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